

정부혁신 보다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 포 일	2019. 6. 21.(금)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항만연안재생과	담 당 자	• 과장 홍원식, 사무관 김근영, 주무관 김정환 • ☎ (044) 200-5980, 5981, 5982
보 도 일 시		2019년 6월 2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3.(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인천 영종드림아일랜드 사업 본격화

- 국내외 투자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착공 보고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4일(월) 서울롯데호텔에서 ‘인천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사업 착공 보고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세계한상기업인 및 국내외 투자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사업의 추진경과 및 착공현황을 보고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사업은 인천항의 항로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다에서 퍼낸 준설토를 매립하여 조성된 대규모 부지를 인천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2년 사업제안 이후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3월 착공되었다. 2022년까지 민간자본 2조 321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크기(332만㎡)의 부지에 골프장,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시설, 테마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약 15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8천 명의 고용창출효과 등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세계한상기업인 등 재외동포들의 투자와 관심에 깊이 감사하며, 영종드림아일랜드에 들어설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참고 1

인천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사업개요

< 사업개요 >

- (시행자)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 * (주)마루한 22.52%, (주)큐브컴인베스트먼트 15.58%, 대성건설(주) 15.58%, 현대건설(주) 15.58%, 미래에셋대우(주) 10.17%, 하나금융투자(주) 10.17%, (주)드림아일랜드레저 10.39%
- (사업내용) 영종·청라지구와 연계한 종합 관광레저단지 조성(3,316천 m²)
 - * 해양문화관광지구(61.5%), 교육연구시설(9.6%), 공공시설(28.9%)
- (총사업비) 2조 321억원(민자 1조 9,501억원, 재정 820억원 *사업자 요구)
 - * 1단계(부지조성) : 4,103억원(민자 3,283억원), 2단계(상부시설) : 1조 6,218억원
- (사업기간) 2014 ~ 2022년(1단계 : 조사·설계, 부지조성공사)

□ 토지이용 계획도



□ 조감도(예시)



참고 2

인천 영종드림아일랜드 사업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전경(행사장 부지)



사업대상지 진입부 전경

공사용 가교



진입도로(비포장)

진입도로(비포장)



진입도로(비포장)

진입도로(비포장)

